

반도체

비중확대 (유지)

이 승 우

02 6915 5771
swleesw@ibks.com

R.A 이 양 중

02 6915 5666
yj.lee@ibks.com

DRAM, NAND 고정가 소폭 상승

- 6월 1H DRAM, NAND 고정거래가격 소폭의 상승세 지속. 모듈 기준 4GB 27.25달러(+0.9%)
- 현물가는 칩 기준 4Gb 3.74달러(+8.1%), 2Gb 1.91달러(+1.6%)
- 특히, 현물가격은 2Gb칩에 이어 4Gb칩도 전고점 돌파하는 등 강세 지속
- IBK View: (1) QE 축소 우려 및 이머징 시장 자금 유출 가능성에 따른 단기 불안감은 상존하나, (2) 반도체 수급과 실적은 매우 양호, (3) 따라서, 반도체 섹터의 중장기 주가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

What's New? - DRAM, NAND 고정거래가격 상승

DRAM 현물가는 칩기준으로 DDR3 4Gb 3.74달러, 2Gb 1.91달러를 기록하며 각각 지난 주 대비 8.1%, 1.6% 상승했다. 특히, 2Gb에 이어 4Gb칩도 지난 10일 전고점(3.48달러)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NAND 현물가격도 MLC 64Gb, 32Gb가 각각 3.96달러, 6.15달러를 기록하며 안정적 가격 흐름을 유지했다.

한편, 6월 상반기 DRAM 고정가는 모듈기준으로 4GB 27.25달러(+0.9%), 2GB 15.5달러(+1.6%), 칩기준으로는 4Gb 3.09달러(+1.0%), 2Gb 1.55달러(+1.3%)로 소폭 상승했다. NAND 고정가격도 64Gb 5.47달러(+2.7%), 32Gb 3.47달러(+1.5%)로 안정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표 1. 반도체 현물가격 및 고정거래가격

(US\$)		DRAM				NAND			
		DDR3 2Gb		DDR3 4Gb		MLC 32Gb		MLC 64Gb	
		Price	Chg.	Price	Chg.	Price	Chg.	Price	Chg.
현물가격									
6/7	금	1.88	0.5%	3.46	0.9%	3.96	-0.3%	6.15	-0.2%
6/10	월	1.89	0.5%	3.53	2.0%	3.97	0.3%	6.15	0.0%
6/11	화	1.89	0.0%	3.55	0.6%	3.97	0.0%	6.15	0.0%
6/13	목	1.90	0.5%	3.62	2.0%	3.97	0.0%	6.15	0.0%
6/14	금	1.91	0.5%	3.74	3.3%	3.96	-0.3%	6.15	0.0%
주간 변화율		1.6%		8.1%		0.0%		0.0%	
연초대비		78.5%		66.2%		38.5%		6.6%	
고정가대비		23.2%		21.0%		14.1%		13.9%	
고정거래가격									
'13.3	1H	1.28	18.5%	2.56	18.5%	2.88	9.5%	5.34	6.8%
	2H	1.31	2.3%	2.63	2.7%	2.96	2.8%	5.34	0.0%
'13.4	1H	1.44	9.9%	2.88	9.5%	3.14	6.1%	5.34	0.0%
	2H	1.50	4.2%	3.00	4.2%	3.32	5.7%	5.34	0.0%
'13.5	1H	1.53	2.0%	3.06	2.0%	3.36	1.2%	5.26	-1.5%
	2H	1.53	0.0%	3.06	0.0%	3.42	1.8%	5.26	0.0%
13.6	1H	1.55	1.3%	3.09	1.0%	3.47	1.5%	5.40	2.7%

주: 6월12일은 중국 단오절로 휴장
자료: DRAM Exchange, IBK투자증권

Analysis – PC 부진에도 DRAM 가격은 견조

인텔의 하스웰 아키텍처 기대에 따른 부품 재고확보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추가적인 수요증가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윈도우8에 이어 하스웰 마케팅마저 기대보다 미진할 경우, PC 업체들은 결국 가격인하 마케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DRAM 코스트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PC 업체들 입장에선 DRAM 용량을 낮추거나, 또는 늘리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DRAM 기대 수요를 낮추는 꼴이 되어, 결국 가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PC DRAM 가격이 더 이상 오르는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중국 로컬 태블릿 수요가 아직 견조하고, PS4와 Xbox One 생산을 위한 부품 출하가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서 DRAM 수급 여건은 계속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타임즈의 보도대로 PS4와 Xbox One이 월 100만대 가량 생산된다면, 이로 인한 DRAM 수요는 하반기 DRAM 총 수요의 4~5%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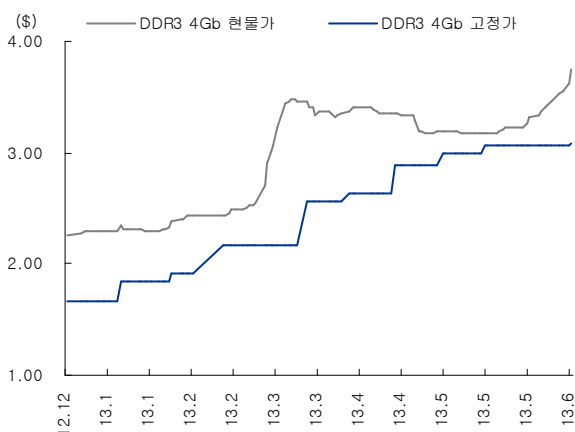
우리는 (1) 모바일 기기의 확대로 PC DRAM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 되었고, (2) 현재가격 수준에서도 실적은 개선 될 것이며, (3) 실적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스페셜티 제품 가격은 예상보다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

IBK View – 단기 주가 불안 가능성에도 펀더멘털은 여전히 긍정적

최근의 DRAM 현물가 상승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대부분 턴어라운드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QE 축소 우려와 이로 인한 이머징 시장에서의 자금유출 가능성이라는 변수는 그 진실과 관계없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리스크 관리 또는 차익실현으로 인한 단기 주가 불안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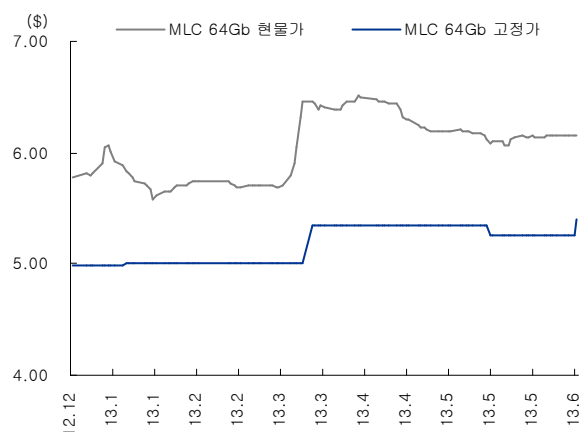
실제 글로벌 유동성 정책에 따라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반도체 수급 상황이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식 수급 요인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의 펀더멘털 개선과 이로 인한 주가 강세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여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DDR3 4Gb 현물가 vs. 고정가



자료: DRAM Exchange, IBK투자증권

그림 2. MLC 64Gb 현물가 vs. 고정가



자료: DRAM Exchange, IBK투자증권